백두산

18호 - 주체91(2002)년 5월 2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명절인 메이데이 112주년을 맞아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노동국장 담화

오늘 우리 노동대중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조국통일을 위한 가열찬 투쟁속에서 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명절인 메이데이 112주년을 맞고 있다.

5.1절은 지구촌의 모든 노동대중이 온갖 지배와 예속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자기의 자주성과 권익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는 날이다.

≪한국≫의 노동대중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임을 자각하고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불굴의 기개를 과시하며 간고하고도 준엄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전년에 이르러 우리 노동대중은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우리 노동대중은 역사적 숙원인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반세기이상 이 땅의 식민지지배자로 군림하여온 미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6.15공동선언관철로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노동대중의 지향을 무참히 짓밟으며 처절한 식민지 노예적 삶을 강요하고 있다.

있지도 않은 북위협론을 고창하며 ≪악의 축≫폭언을 연발하고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이면서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를 몰아오고 있는 부시호전광의 간악한 책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못할 유린행위이며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려는 대범죄행위이다.

미국침략자들은 ≪한국≫경제를 저들의 철저한 식민지예속경제로 만들어놓고도 부족해 약탈적인 경제정책과 강도적인 구조조정압력으로 노동대중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리려고 악착하게 책동하고 있다.

외세가 주인된 땅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날마다 고용불안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과중한 세금부담, 엄청난 교육비지출로 삶의 막바지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천부적인 생존권보장요구마저 불법으로 몰려 탄압당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악랄한 침략책동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발발위험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식민지≪한국≫은 자주의 폐허지대, 민주민권의 사각지대, 부익부빈익빈이 극대화된 인간생지옥으로 전락되고 지구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노동살인국, 식민지노예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노동대중의 참다운 권익과 생존권도 보장할 수 없으며 6.15공동선언도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노동대중은 더이상 미제침략자들에게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자로 짓밟히면서 민족공멸을 초래할 핵전쟁책동의 희생물로 될 수 없으며 미국자본의 횡포에 우리의 **를 **당할 수 없다.

단결은 메이데이의 상징이다.

오직 단결과 투쟁만이 우리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고 진정한 노동해방과 민족의 자주권, 꿈에도 소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다.

이 땅의 1300만 노동대중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일치단결하여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며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반미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모든 노동자들과 노동운동단체들은 각계 애국민중과 굳게 연대연합하여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친미우익보수세력의 집권책동을 반대배격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조직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이 땅의 노동형제들과 어깨겯고 인간의 참삶이 보장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통일된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거세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주체91(2002)년 4월 30일

민노총,세계노동절 112주년 기념대회 개최

세계노동절 112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기념대회를 1만 5천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저지 △노동운동탄압 분쇄 · 구속노동자 석방 △비정규직 차별철폐 · 정규직화 △공무원 · 교수 노동3권 보장 △김대중 부패정권 규탄과 무기강매 미국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수호(민주노총 임시비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노총이 처해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어떻게 단결하고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다≫며 ≪제정당과 제조직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날 우리 함께 싸워나가자≫고 대회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4월초 발전파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조직내부의 혼란을 겪어온 게 사실≫이라며 ≪잘못과 오류는 분명히 밝히고 책임 또한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정세와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투쟁의 과제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힘차게 일≫어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대사에 나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표는 ≪민노총이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를 예속 경제로 만들고 있는 미국반대 투쟁을 해야 한다≫며 이는 ≪민노총만이 미국반대, 김대중 정권 반대 투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홍근수(민중연대 공동대표) 목사도 연대사에 나서 ≪발전노조 투쟁은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민족이 자주적인 독립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속적인 국가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투쟁이었으며 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민노총 동지들이 정도와 수준을 떠나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한다면 모든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2002년 한국노동자 투쟁 선언≫을 통해 ≪뼈를 깎는 자성과 열린 마음으로 1300만 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을 일으켜 세우자≫고 결의를 모았다.

참가자들의 투쟁 선언으로 본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여의도에서 영등포시장 로터리까지 거리행진을 가진 뒤 기념대회를 마쳤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본대회에 앞서 각 연맹별로 사전대회를 가졌으며, 전날인 30일 밤에는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비정규직 · 중소영세 · 여성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 한국노총도 1일 오후 1시 종묘공원에서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2002년도 5 · 1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송정미기자
통일뉴스 2002/05/02

2 종합
• 태양회, 인쇄물배포
• 불패의 위력을 지닌 조선의 인민방위무력
•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 미국 5월중 북에 특사 파견
• 백악관 대북성명 전문
•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을 규탄
• 일본총리 신사참배, 인류양심에 대한 도전

4 노작
•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3)

6 세기와 더불어
• 7장 3절 국제당 파견원

8 칭송
• 크나큰 사랑 속에서
• 겨레사랑 선군길이여
• 위인에 대한 인류의 격찬

9 노동신문 사설
• 동지애의 천만리(2)

11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방법론적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12 한국민족민주전선
• ≪F-15K≫ 도입반대투쟁

13 투쟁보도
• 112주년 메이데이 전야 연대 한마당
• 112주년 메이데이 기념식
• 전야제에 열린 민주노동당 토론회
• 노무현-YS 회동에 대해 비난과 비판

15 운동강좌
•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3)

태양회, 인쇄물배포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지난 10일 서울의 한 공원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영생을 기원하는 인쇄물이 배포되였다.

태양회의 명의로 된 인쇄물의 앞면에는 ≪민족최대의 명절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돐을 뜻 깊게 기념하자≫라는 글발과 함께 만경대고향집이, 뒤면에는 ≪**김일성**주석님은 민중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라는 글발과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이 모셔진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이 그려 져 있었다. 인쇄물의 테두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상징하여 각각 90송이의 **김일성**화와 목란꽃으로 장식되여 있었다.

한편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남조선의 태양회 성원들이 ≪조국통일의 구성≫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출판하였다. 도서는 총 90페지로 되여 있다.

도서의 첫 페지에는 **김일성**주석의 사진이 모셔 져 있다. 그리고 **김일성**주석께서 문익환목사를 접견해 주신 사진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그이의 영상을 수록한 여러상의 사진들이 모셔 져 있다. 도서에는 **김일성**주석께서 발표하신 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등이 수록되여 있다.

조선중앙통신 4월 30일

불패의 위력을 지닌 조선의 인민방위무력

김익현차수가 ≪노동신문≫에 기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기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로농적위대열병식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인민방위무력의 불패의 위용과 전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로 전변된 자위의 나라, 선군조선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금 힘 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인민군 김익현차수가 ≪로동신문≫ 30일부에 기고한 ≪백두산3대장군이 키우신 인민방위무력의 불패의 위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와 같이 강조하였다.

그는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의 조직은 주체사상을 국방분야에 구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자위적군사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전 인민적, 전 국가적 방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질수 있게 한 력사적 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일찌기 없었던 최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인민방위무력은 한손에는 총을, 한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들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현대적인 타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우리 인민방위무력은 자체의 힘으로 원쑤들을 능히 물리치고 자기의 향토와 일터를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자라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신념, 담력과 배짱, 전법으로 싸우는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김익현차수는 만일 적들이 우리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다친다면 우리 인민방위무력은 인민군대와 함께 원쑤격멸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위업, 우리 제도를 영예롭게 수호할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30일

인민군 공군비행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 진행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평양에서는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4월 2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로농적위대들의 열병식은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건군절행사와 달리 한 나라의 전략적로선과 그를 담보하는 국력을 시위한것으로 하여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력이자 곧 군력≫

조선은 국방중시의 정치, 선군정치를 나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국력이자 곧 군력≫이라는 세계정치외교무대의 현실에 대한 랭철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올해 4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돐을 맞이한 조선인민은 70년전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여 조국광복후 그 대오를 정규적무력으로 장성강화해 나가신 그이의 업적을 되새기고 있다. ≪로동신문≫(4월 21일부)도 건군절에 즈음한 정론에서 ≪조선의 현대력사는 군대가 약해서 잃었던 조국을 혁명군대의 강한 힘으로 다시 찾고 억세게 지켜 온 력사로 특출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명절에 즈음하여 열병식이 진행되여 왔다.

199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광장에 나란히 한 병사들을 향해 축하의 말씀을 하시였다.

건군절 경축공연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그 말씀은 심호한 뜻을 담고 있었다. 90년대 조선이 겪은 전대미문의 시련은 국방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동서랭전체제가 무너지자 미국을 비롯한 적대국들은 조선에 과녁을 집중하여 군사적압력과 경제적봉쇄를 다했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여러해째 들이닥쳐 경제적난관이 겹쳤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운 이 시기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시였다. 주석님께서 서거하신 이듬해 1995년 새해 첫 아침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신 그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군님께서 찾으신 군부대는 800여개 단위에 이른다.

인민들의 소감

2002년 4월 25일 **김일성**광장에서 붉은기를 날리는 열병식의 광경은 그러한 로선선택의 귀결이라 말할수 있다. 싸워서 이길수 있다고 생각한 나라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무력침공을 감행하는 미국이 조선에는 포탄 한발 날리지 못했다. 조선의 독특한 사회주의제도는 고수되였다.

≪유일초대국≫과의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지난 10년간의 경이적인 사변을 목격하고 생활속에서 체험한 인민들은 경제적형편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던 그 시기를 더듬어 볼 때 숨 죽인 공장, 불 없는 마을을 뒤에 두고 최전연초소를 찾아 가신 지도자의 결단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군 한다. 오늘날 자기 나라 땅에

로농적위대 열병식

평화가 흐르는것은 군력이 강했기때문이라는것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 낸 인민들의 꾸밈 없는 소감이다.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서방나라들의 가치관으로 제 멋대로 해석하고 ≪군사국가≫요 뭐요 하면서 그 진수를 외곡하는것은 부질 없는 일이다. 조선의 선군정치는 나라의 군사적힘을 강화했을뿐아니라 경제부흥의 돌파구도 열어 놓게 하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건설의 주요한 부문에 인민군부대가 파견되였다. 토지정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맡아 하고 수많은 공장과 건설대상들을 일떠세웠다. 인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기때문에 국방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수용하고 관철하려 하고 있는것이다.

자주정치의 담보

최근시기 미국의 대조선정책담당자의 평양방문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부쉬대통령의 ≪악의 축≫발언에 단적으로 나타난 대결과 강권의 정책로선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는것이 조선국내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조미대결은 끝 없는 장기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로농적위대 다시말하여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민간무력이 참가하여 진행된 21세기의 첫 열병식은 장기적인 힘겨루기에 림하는 기본자세를 표명하는 행사로 준비되였다고 볼수 있다. 열병식의 마지막장면, 광장에 집결한 수만명 수도시민이 불렀던 ≪동지애의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의 노래는 20세기의 대일, 대미대전의 불길속에 다져 진 조선의 군민일치사상의 집약적인 표현이였을것이다.

바로 이 단결의 힘을 국력의 기본으로 삼아 조선은 미국과의 외교전에서도 자기 할 말을 다해 왔다.

≪선의에는 선의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오늘의 조선은 대국들사이에 끼여서 사대굴종하는 나라가 아니다. 선군에 기초한 자주정치로 적대국의 로선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조선신보 2002/05/01

미국 5월중 북에 특사 파견

이북의 미사일 개발 · 수출문제 등이 주요 의제

미국이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18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북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미국은 이북과의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이북에 대화 재개를 제안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또한 이북이 이미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미 국무부에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북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한 상태인데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이북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수출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북은 유엔 대표부를 통해 북미 대화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미국은 아직까지 대화 재개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시 행정부는 단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북미대화 재개 발표는 지난 1월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이북을 ≪악의 축≫으로 표현한 이후 처음 공식화된 것으로 미국의 향후 대북 협상자세에 변화가 나타날 지 주목된다.

이북은 지난 4월초 임동원 특사의 방북시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미국의 방북 특사로는 이북 전문가인 잭 프리처드 대북협상담당 대사가 확실시되며 시기는 미국이 이미 특사파견 의사를 밝힌 상태라 5월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이 현실화되면 이북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 대화에 임할 것으로 전망되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보다 고위급인 백남순 외무상이나 김위원장 등이 직접 대화석상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이뤄졌던 북미대화는 주로 이북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저지하는 대가로 미국이 경제 지원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한편 정부는 1일 북미대화 재개를 환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정승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미국과 이북이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이북간 상호 관심사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에도 이비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프레시안 2002/05/01

백악관 대북성명 전문

미국 백악관은 30일 미-북대화 재개와 관련한 짤막한 대북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백악관 성명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유엔 상주대표부를 통해 DPRK가 미국과 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 국무부에 통보해 왔다. 미국은 앞으로 며칠 안에 그 시기와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토록 노력한다.

2001년 6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북의 미사일 개발계획과 수출, 제네바 기본 합의 이행, 재래식 군사력, 기타 다른 관심분야 등에 관한 미국의 광범위한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는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김성수특파원
연합뉴스 2002/05/01

최성홍을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리에서 당장 떼버리는 조치를 취해야

30일부 ≪로동신문≫은 남조선의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이 미국에 찾아 가서 부쉬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추어 주는 망발을 늘어 놓은것을 단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미국의 대조선강경압살정책으로 하여 동결상태에 처하였던 북남관계가 원상회복되고 북남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다시 시작된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성의 있는 노력의 결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그가 미국상전을 찾아 가 북남관계의 진전이 마치도 미국의 ≪힘≫의 정책의 결과인듯이 허튼 수작질을 한것은 민족반역행위인 동시에 대화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전행위이라고 규탄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민족적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그 앞길에 훼방을 놓는 반통일대결분자인 최성홍을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리에서 당장 떼버리는 책임적이고 납득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6.15공동선언이 귀중한가, 민족반역자가 필요한가, 남조선당국은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온 겨레는 남측의 립장과 태도를 지켜 볼것이다.

조선중앙통신 4월 30일

일본총리의 ≪야스구니신사≫참배는 인류양심에 대한 정면도전

≪로동신문≫ 30일부는 ≪인류량심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당국자들이 군국주의바람을 일구는데 앞장 서고 있다.

지난 4월 21일에 있은 일본총리의 ≪야스구니진쟈≫참배가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일본당국자가 이번에 ≪야스구니진쟈≫를 갑작스럽게 참배한것은 매우 문제성 있는 행위이다.

≪야스구니진쟈≫는 군국주의우두머리 도죠를 비롯한 일제특급전범자들의 망령이 있는 침략과 전쟁의 상징, 군국주의정신적기둥이다.

이러한 곳에 다름 아닌 일본의 현직총리가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찾아가 머리 조아리며 전범자들의 명복을 빈것이다.

이것은 일본당국자들이 죄악에 찬 과거를 얼마나 못 잊어 하며 그를 재현하려고 몸살을 앓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일본당국자의 이러한 행위는 지금 일본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도처에서 항의와 규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 교활하게도 참배시기와 형식까지 바꾸어 가며 사람들을 기만하려 한것으로 하여 인류량심의 더 큰 분노와 증오를 자아내고 있다.

일본총리의 ≪야스구니진쟈≫참배는 단순히 그 어떤 풍속을 존중하는 도덕적행동이 아니며 범죄적인 과거를 반성하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집권후 해마다 벌리는 일본집권자의 참배놀음은 그것을 정례화, 공식화하여 군국주의정신무장화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일본총리의 이번 참배는 과거죄행청산을 요구하며 군국화, 해외팽창을 반대하는 아시아인민들과 인류량심에 대한 로골적인 정면도전이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본총리의 참배가 군국주의적인 ≪유사시관련법안≫조작놀음이 벌어 지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는것이다.

알려 진바와 같이 지금 일본에서는 군국주의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되게 불고 있다.

≪자위대≫의 무력이 증강되고 있으며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의 합법화와 국내의 전시체제수립이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침략의 법적준비의 마지막고리로서 전쟁에 인적 및 물적자원을 총 동원하기 위한 ≪유사시관련법안≫이 국회심의에 제출되였다.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적, 법적준비가 마지막단계에 이른 지금 일본반동들에게 남은것은 바로 군국주의정신무장화를 실현하는것뿐이다.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피바다에 잠근 일제의 광신적인 사무라이정신과 행위를 따르도록 하자는데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의 진짜목적이 있으며 군국주의정신무장화의 핵이 있다.

이러한 군국화책동을 일본의 최고위당국자가 앞장에서 이끌고 있다는데 보다 큰 엄중성이 있는것이다.

이번에 일본당국자는 내외의 항의와 규탄이 두려워 참배시기와 형식에 대하여 운운하였는데 그것은 저들의 본심을 감추기 위한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

≪진쟈≫안에서는 전범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밖에 나와서는 그 무슨 ≪리해≫와 ≪평화≫, ≪친선≫을 바란다는 안팎이 다른 넉두리를 하는것은 가소롭고 얄밉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일본이 입만 벌리면 이른바 ≪평화≫와 ≪친선≫에 대하여 표방하지만 평화, 친선은 군국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일본당국자들의 교활한 량면술책은 오히려 아시아인민들의 지난 날의 아픈 상처를 더욱 자극하고 그들의 분노만을 더 크게 할뿐이다.

일본당국자들은 과거범죄를 미화하고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행위가 과연 일본에 리로운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는것이 좋을것이다.

군국화와 해외침략책동이 일본에 가져다 줄것이란 국제적인 고립과 파멸밖에 없다. 이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책동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재침책동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는 조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뼈 아픈 상처와 대일원한의 감정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건드리는 놀음을 그만두어야 하며 매사에 심중하게 처신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4월 30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3)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노작 - 주체84(1995)년 10월 2일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자주성은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며 그자체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자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가 처한 환경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특성으로 하여 우리 당에 있어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고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를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은 주체의 원칙, 자주성의 정신으로 일관된 혁명적인 자주로선이며 우리 당은 이 로선을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 나갔다. 우리 당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반대하고 그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도 단호히 배격하였으며 기성리론과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모든것을 분석판단하고 자기의 신념과 결심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복잡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헤쳐 나갔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힘 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당의 혁명사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들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적립장과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현대수정주의를 비롯한 기회주의의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 올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관철하여 반석같이 다져 놓은 우리의 정치사상적힘과 위력한 사회주의자립경제와 불패의 자위적군사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제국주의와 지배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정치외교적압력과 사상문화적와해책동도 경제적봉쇄와 군사적위협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할수 없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허물수도 압살할수도 없다는것을 현실은 보여 주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공정한 국제관계의 기초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가장 정당하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이다.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발전된 민족이나 덜 발전된 민족이나 할것 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자주적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성을 지키고 자주성을 서로 존중할 때 공정한 국제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으며 진실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공고히 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적극 기여하였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주체적립장과 자주로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였으며 혁명적로선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혁명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적원칙을 지키는것은 혁명의 근본리익을 지키고 혁명을 편향 없이 승리에로 이끄는 길이며 혁명적원칙에서 물러서는것은 혁명의 근본리익을 저버리고 혁명을 패배에로 이끌어 가는 길이다. 혁명운동의 력사는 혁명적원칙에서 한걸음 물러서면 두걸음 물러서게 되고 두걸음 물러서면 열걸음 물러서게 되며 결국은 혁명을 망치게 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혁명적원칙성이 없고 로선과 정책에서 일관성이 없는것이 온갖 기회주의의 특징이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혁명적원칙성은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충실성과 신념,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당의 의지에 의하여 담보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드놀지 않는 혁명적신념과 강철의 혁명적의지를 지니시고 난관과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령도하여 오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가이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원칙성과 령활성을 가장 능숙하게 결합시키는 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끌어 주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원칙,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견지하였으며 혁명적인 로선을 일관하게 철저히 관철하였다.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 없는 창조와 혁신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령활하게 대처해 나가면서도 혁명의 근본리익과 근본원칙에서는 한걸음도 물러 서지 않았으며 혁명적원칙과 혁명적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한 높은 창조성과 령활성, 로선과 정책에서의 일관성, 이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여 온 중요한 령도원칙이고 령도예술이며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과 정책의 특징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 기간 혁명적원칙에서 탈선한 일이 없고 원칙이 없이 우왕좌왕한 일이 없으며 로선상 과오를 범한 일이 없다. 우리 당의 혁명적원칙성, 로선과 정책의 일관성으로 하여 우리 혁명이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곡절과 편향이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고 인민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 내릴수 있은것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 있게 령도하여 온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맡기고 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고 있다.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귀중한 경험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적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우리 혁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빛나게 계승완성될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하며 우리 혁명의 앞 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 놓여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우리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해도 우리는 **김일성**동지

→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빛나는 새 력사를 창조하여 왔으며 이 길에서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렸다.

의 유훈을 지켜 이 길로만 곳곳이 걸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움직일수 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하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사활적요구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 혁명적 령도방법을 옹호고수하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김일성**동지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 주신대로 하며 모든것을 **김일성**동지식으로 해나가는것, 이것이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길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는 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승리의 기치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떠나서 **김일성**동지의 당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당안에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 차게 하며 전당이 주체사상으로 숨 쉬고 주체사상으로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야 하며 언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주체사상을 끊임 없이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사상의 변질은 당의 변질을 가져 오며 혁명과 건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된다.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는것이며 당의 위업을 고수하는것이다. 부르죠아반동사상과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사상조류의 침습을 반대하여 끊임 없이 투쟁하며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이 우리 내부에 발 붙이고 자라 날수 있는 자그마한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혁명적진수와 순결성을 고수하면서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고 풍부화하며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

우리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해 나가야 한다. 당건설과 군건설,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개화발전시키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놓으신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당의 생명이며 통일단결은 곧 당의 힘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이며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담보이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일관하게 틀어 쥐고 나가야 하며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고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좀 먹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고 당대렬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결코 자만하여서는 안된다. 당의 통일단결은 끊임 없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서만 유지되고 공고화될수 있다. 가족주의, 지방주의, 종파주의를 비롯한 당의 통일단결을 좀 먹고 저해하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제때에 극복하여야 하며 당안에 언제나 단결의 정신, 단결의 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과 인민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끊임 없이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본분으로 하고 있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것은 **김일성**동지의 당의 본성이며 기본특징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키워 오시고 **김일성**동지의 령도 따라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 온 위대한 혁명적인민이며 우리 당의 인덕정치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아래에서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훌륭한 인민이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에 끝 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을 굳게 믿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무비의 영웅성과 무진장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 나가고 있다.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한결같은 지지는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우리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며 보살펴 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더 잘 건설하며 일군들속에서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높여 당의 인덕정치를 더욱 빛나게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이 되고 인민의 리익의 옹호자가 되여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 가자!≫는 당의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 가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업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을 가지며 검소하고 청렴결백한 생활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믿고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힘차게 투쟁하며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한다. 우리는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난국을 뚫고 전진하여 온것처럼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와 영광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오늘우리 당과인민은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 들어 섰다. 우리 당은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 나갈것이며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날것이다.

(끝)

3권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4. 국제당파견원

우리가 유격근거지에서 좌경과의 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던 1933년 4월경에 동장영은 다부산자 차림을 한 중년 손님 한 사람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차림새와 행동거지가 퍽이나 점잖고 세련된 중년의 그 사나이는 나를 보자 멀리서부터 미소를 짓고 인사의 표식으로 머리 위에 한쪽 손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내가 알고 있는 구면 손님일 것이라고 잘못 판단할 만큼 다가오는 사나이의 눈동자는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악수를 나누고 보니 구면은 아니었다. 이상한 일은 난생 처음 보는 그 알지 못한 손님이 어째서인지 구면처럼 자꾸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웃으면서 그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이 수수께끼같은 손님이 바로 국제당 파견원(순시원) 반성위였다. 반이란 성이고 성위는 이름이 아니라 만주성 당위원이란 직책을 이르는 약어였다. 위증민을 로위라고 부르듯이 사람들은 대체로 그를 로판이라고 불렀다. ≪판≫은 ≪반≫의 중국식 발음이다. 중국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성앞에 ≪로≫자를 붙이는 좋은 예절을 가지고 있었다. 반성위를 본명대로 이기동이라고 부르거나 반경유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반성위는 만주지방의 공산주의자들속에 널리 알려진 이름난 혁명가였고 당활동가였다.

나에게 반성위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으로 해준 것은 왕윤성이었다. 9.18사변 후 반성위가 영안현당 서기로 공작할 때 왕윤성은 그밑에서 선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자기가 영안현당에서 선전위원의 직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은 것도 반성위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반성위는 황포군관학교 졸업생으로서 중국의 무창폭동과 북벌전쟁에도 참가하였고 쏘련에 가서 공부도 한 바 있는 능력있는 노간부라는 것이었다. 한때는 수녕중심현위 서기로도 활약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국제당파견원
리기동(반경유)

반성위의 인간미와 예리한 통찰력에 매혹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성위에 대한 왕윤성의 존경심은 보통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그때 그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인접에서 반성위와 같은 우수한 혁명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 후에는 최성숙, 조동욱이 북만에서 나와 또 반성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최성숙은 자기를 왕청에 가라고 추동한 사람이 반성위였다고 하면서 그의 지도밑에 영안시가에서 5.1절 시위를 하던 때의 일을 재미나게 말해주었다.

이런 전제가 있어서인지 우리는 자연히 왕윤성과 최성숙에 대한 이야기에 적잖은 시간을 바치게 되었다.

최성숙

≪영안에서 온 최성숙동무가 잘 있습니까?≫

우리의 대화는 반성위의 이런 물음으로 시작되었다.

아랫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반성위의 특출한 장점이라고 하던 최성숙의 말이 되살아 오르며 새삼스럽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건강합니다. 북만에서 오자마자 대왕청소비에트 대표로 선출되었더랬습니다. 지금은 소왕청구부녀부 위원으로 선거되어 부녀회사업을 하느라고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무가 여기 와서도 말을 탑니까?≫

≪탄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혁명군에 들어가서 기병이 되겠다는 결심을 품고 승마기술을 배운 동무입니다. 아주 담차고 이악한 처녀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왕청 사람들이 호박을 잡은 셈이구만요. 북만에서 놔준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그의 가족들이 북만에 있지만 나는 그를 보고 동만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만주지방 혁명투쟁의 중심이야 간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혁명을 더 본때있게 하고 싶거든 왕청에 가라. 거기엔 인민의 세상으로 된 근거지가 있다. 나도 간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나도 거기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나는 반성위가 동만지방을 조선혁명의 기본적인 책원지라고 평가하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유격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경망동적인 사태를 목격하게 되면 그가 간도에서의 혁명투쟁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물론 나에게 있어서 반성위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적 입장 같은 것은 아직 미지수나 다름없었다. 반성위가 정치적 시야가 넓고 투쟁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여 그가 무조건 좌경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는 법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반성위에 대한 왕윤성과 최성숙의 평가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들은 반성위가 아랫사람들을 대하는데서 절대로 편견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과 주견을 가지고 매사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노숙한 일군이라는데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였다. 반성위에 대한 나의 첫 인상도 무척 좋았다.

그날은 그런 정도로 풋인사나 하고 그쳤다. 우리는 훗날 다시 만나서 본격적인 담화를 나누기로 하고 서로 헤어졌다. 국제당 손님은 시간을 잘못 선택한 셈이었으니 나는 부대를 데리고 파도식으로 달려드는 수천 명의 ≪토벌군≫ 무력을 격퇴하기 위하여 전투장으로 당장 나가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부대를 따라 전투장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허술한 총이나 한자루 주시오.≫

반성위는 동만에 왔다가 싸움구경도 못하고 돌아가면 국제당 파견원으로서의 체면도 서지 않고 일생 후회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니 하루동안의 참군이야 허락하지 못하겠는가고 하면서 그냥 대열을 따라오려고 하였다.

≪반동지, 총알은 국제당 파견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싸움구경을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테니 오늘은 노독이나 푸시지요.≫

나는 반성위를 설복시키고 나서 싸움터로 나갔다.

적들은 소왕청유격구를 삼면으로 포위하고 연 3일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하였다. 우리는 완강한 방어전으로 그 공격을 견제하고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적들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토벌군≫은 그때 관문라자(돌문안) 방향과 뾰족산 방향에서 봄 안개를 이용하여 은밀히 유격구로 기어들었다가 자기편끼리 맞불질을 하는 희비극까지 연출하였다. 이 망원 전투가 한동안 소왕청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반성위도 그 소식을 듣고는 폭소를 터뜨렸다고 하였다.

반성위의 출현은 왕청 사람들에게서 각이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소비에트 좌경노선을 국제당의 시정방침으로 보고 국제당의 명령일하에 재채기도 하고 하품도 하는 사람들은 로판이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이며 따라서 그의 출현은 인민혁명정부노선을 제창하는 사람들에게 우경의 딱지를 붙이고 그들이 다시는 정권형태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노선을 좌경이라고 비난하면서 인민혁명정부노선에 의한 새 형태의 정권수립을 부단히 추구해온 사람들은 소비에트를 반대해온 자기들의 입장이 로판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에게 국제당의 명의로 되는 처벌까지 가해질 수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반성위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반성위의 출현이 소비에트노선으로부터 방금 해탈하기 시작한 유격구의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계기로 될 수 있다고 예언하였다.

전자가 미리부터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 있었다면 후자는 마음속으로 패배의 비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양자가 다같이 국제당의 권위와 권한을 절대시한 데 있었다. 한 당의 파산을 선포할 수도 있고 한 인간의 범죄를 심판할 수도 잇는 국제

→

김해산

당은 그들에게 있어서 국제적인 ≪대법원≫과 같이 어머어마한 존재였다. 그들은 국제당이 한 혁명가의 운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간주하였다.

반성위의 출현은 유격구를 긴장시켰다. 나도 역시 팽팽하게 긴장된 그 공기를 매 순간마다 감촉했다.

국제당의 의사와 맞지 않는 인민혁명정부노선을 소비에트노선에 대치시키고 소비에트의 시책을 좌경망동이라고 한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위가 어떤 입장을 취하겠는가 하는 것은 자못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였다.

나는 좌경의 전횡밑에서 인민이 울고 있는 동만 땅에 국제당이 파견원을 보내준 것은 혁명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소비에트노선과 인민혁명정부노선이 서로 대치되어 제가끔 자기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시점에서 반성위의 출현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고 다른 하나를 부정하게 될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국제당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담보는 아직 그 누구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국제당과 만주성위를 비롯한 여러 조직들에게 유격근거지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령들을 연발하는데 대하여 그에게 항의를 들이댈 결심도 서 있었고 그와 함께 소비에트노선 집행과 반≪빈생단≫투쟁 과정에서 발로되고 있는 극좌적인 경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론투쟁까지 하리라는 각오도 가지고 있었다. 처벌이나 그 무슨 제재조치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은 염두에도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결판을 낼 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불평을 가진 일부 동무들이 동만의 사태를 수습해 달라는 신소편지를 써서 국제당에 보낸 것 같았다. 국제당에서 그 편지들을 검토하고 동만지방은 조선사람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니 조선사람인 반성위가 나가서 일을 수습하라고 하였던 모양이다. 훗날 반성위 자신도 국제당에 그런 신소청원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소왕청방어 전투를 끝내고 돌아온 다음 반성위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첫 상봉의 날보다는 얼굴빛이 밝지 못하였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무거운 시름거리를 안고 그것을 묵새기기 위해 애쓰는 듯한 파견원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가 마침내 정치철학이 복잡하게 교차되는 준엄한 현실생활의 심자로에 들어섰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보매 그는 동장영과 무슨 노선상 문제를 가지고 충돌한 것 같았다.

나는 마촌에서 제일 큰 이치백노인네 집에 반성위의 숙소를 정해준 그 집 윗방에서 열흘 남짓하게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반성위는 중국말을 아주 잘하였다. 그가 처음부터 중어로 말하는 바람에 나도 자연히 중어로 그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화는 주로 밤과 새벽 시간에 나누었다. 낮에는 내가 부대를 지휘해야 하므로 그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반성위도 낮이면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며 유격구의 실태요해를 하느라 바삐 보냈다.

객지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남의 집 윗방살이라는 것이 비록 불편스러운 점은 있지만 손님들 사이를 얼마나 친밀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그처럼 친밀할 관계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구수하고 흥미진진한 것인지 잘 알 것이다.

나와 반성위도 그 열흘 사이에 서로 생살이라도 떼줄만치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반성위는 나보다 나이가 20여 살이나 더 든 투쟁경험이 풍부하고 노숙한 혁명가였지만 틀을 차리거나 연령의 격차로부터 오는 거리감을 조금도 두지 않고 나와 동지 대 동지로서 허심탄회하게 열정적으로 담화를 하였다.

처음에는 혁명실천과 관련되는 공식적인 화제를 떠나서 각자의 자서전이 소개되었다. 내가 자기를 소개하고 나면 반성위가 자기 경력을 연달아 공개하였다. 그 다음은 엇바꾸어가며 그 일생기를 보충하든가 감상을 발표하였는데 밤이 지새는 줄도 몰랐다.

반성위는 내가 20살도 되기 전에 네 번이나 붙잡혔으며 감옥생활도 했다는 말을 듣고 사뭇 신기해 하였다.

≪그러나 감옥살이를 하는데서는 김동무가 나보다 선배인 셈이구만.≫

그는 자기도 하얼빈에서 감옥밥을 좀 먹었는데 5.1절 대시위를 조직한 것으로 하여 영안현당은 풍지박산이 되었다고 하였다. 만주국 관헌들의 무자비한 탄압과 일본군의 ≪토벌≫에 조직들은 다 파괴되고 당원들과 핵심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반성위는 그것을 당대열이 급격히 확대되고 그 활동이 적극화되는 과정에 자기네 머리를 병들게 한 현훈증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 대신 5.1절 시위의 교훈이 김해산, 이광림을 대장으로 하는 영안유격대 창건의 정치적 동기로 되었다는 것만은 그도 인정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좀 맞고서야 우리 시위가 서투르게 조직된 철늦은 시위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소. 조직들을 더 깊이 지하에 들여보내고 무장투쟁을 해야 할 때 글쎄 현성거리에서 당원들까지 내세워 시위를 조직하다니 ≫

반성위는 그 시위에 대한 말을 꺼낼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곤 하였다. 그리고나서는 우리가 길회선 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여 조직했던 시위투쟁을 연방 격찬하였다. 그는 남들의 업적앞에서 공정하고 대범한 반면에 자기 자신이 해놓은 일에 대하여서는 과소평가하든가 지나치게 허무적으로 대하는 그런 유형의 사나이었다.

≪며칠 전에 생일 스물한 돌을 맞이했다면 내 나이의 절반밖에 안되는데 감옥생활에서도 선배라고 해야겠지만 총적인 인생에서도 김동무는 내 선배라고 해야겠소.≫

반성위가 내 경력을 다 듣고나서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가 선배라는 말을 자꾸 하는 바람에 쑥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반동지, 그렇게 자꾸 추어올리는 말씀만 하다가 젊은 사람을 아예 병신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반성위는 러시아 사람들 식으로 두 팔을 쩍 벌이고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김동무는 평가하는 그 이면에는 사실상 내 자신의 일생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지 못한 사람이오. 나이 43살이면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남들에게 선을 보일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으니 야단이 아니오.≫

≪너무 겸손한 말씀입니다. 반동지의 생애에서는 남방의 폭양도 있고 북방의 폭설도 있습니다. 웃음도 있고 고민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자기를 허무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40이 지났다고 해서 어떻게 좋은 시절이 다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비판을 해도 반성위는 그것을 고깝게 여기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자기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한다고 생각하였다. 중국 남방에서의 활동을 제껴놓고라도 북만에서 영안현위와 수녕중심현위의 서기직을 역임하고 영안유격대 조직의 산파역까지 감당해온 그의 공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였다. 수녕중심현위란 목릉, 영안, 동녕, 밀산 등의 현위들을 통합하여 내온 규모가 상당히 큰 현위였다.

한때는 반성위가 국제당과 만주성위 사이에서 중간연락기관의 사명을 수행하는 길동국의 지도간부로 영전된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그 소문이 비록 실천적으로 결실을 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 국제당이 그를 소환하여 동만 지방 사업을 지도검열하는 파견원으로 보낸 것만 보아도 그가 신망있는 일군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의 담화는 자기 소개의 경지로부터 상호관심사로 되는 현행 정치문제에 대한 실정의 통보와 의견교환으로 넘어갔다.

우리가 첫 번째로 논의한 것은 국제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관한 문제였다. 국제당연락소일군들과의 연계를 가지면서도 그들과 함께 솔직하고 심도 있는 담화를 해보지 못했던 나에게 있어서 그 논의는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나는 반성위에게 국제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소개한 다음 국제당 노선과 지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밝혔다.

≪우리는 국제당이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참모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국제당은 지난 기간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국제적인 연합에 집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민테른이 공산주의운동에서 중앙집권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 중심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지난 시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당 규약과 노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동지, 이거 버릇없는 태도라고 나무라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국제당의 처사를 두고 좀 할 말도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말은 반성위의 얼굴 표정을 순간에 긴장시켰다.

≪그 말은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할까? 혹시 무슨 의견이라도 가지고 있는게 아니오?≫

≪글쎄요. 의견이랄지 불만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오래 전부터 국제당을 향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좋으니 여기서 속시원히 다 말해봅시다.≫

반성위는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주시하였다.

나는 오늘이야말로 국제당을 향하여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종파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국제당이 지난날 조선공산당의 해체를 선언한 데 대하여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종파야 조선공산주의자들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자도장 놀음을 하는 거야 인도지나 공산당이나 그밖의 당들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을 끝냈을 때 반성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긴장이 아니라 놀라움 같은 것이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반성위에게도 나의 그 말은 예상밖의 급습으로 된 것 같았다.

≪나는 국제당 파견원으로서가 아니라 김동무와 다름없는 조선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선공산당 해산을 수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한 국제당의 처사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는 바이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소. 조선공산당은 해산됐는데 인도지나공산당이 해산되지 않고 건재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는 것이오. 그건 호지명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국제당에 인도지나대표로 틀고앉아 있었기 때문이였소. 그런데 그 당시 조선공산주의운동 대열에는 국제당의 인정을 받을 만한 출중한 인물이 없었고 영도핵심이 없었던 것이오.≫

당이 해산되게 된 기본적인 이유의 하나를 지도자와 영도핵심이 없는데서 찾는 반성위의 말은 당 해산의 1차적 원인을 파쟁에서만 찾아보는데 습관된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국제당의 인정을 받을 만한 세계적인 지도자의 결핍, 그것으로 하여 조선공산당의 해산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 반성위식의 분석이고 발견이었다.

(내일 계속)

일화

크나큰 사랑 속에서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행복을 누리며 한생을 빛내인 이남출신 문예인들중에는 태을민씨도 있다.

태을민씨가 세상을 떠난지 근 10년이 되어오던 해 4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김정일**영수님께서는 그가 출연하였던 어느 한 작품의 녹화물을 보아주시다가 태을민은 정말 아까운 인재였다고 하시면서 다시금 그를 잃은 애석함을 금치 못해 하시였다.

그리고는 그가 출연한 영화들을 다시 돌려 그의 연기술을 배우들이 따라배우도록 해야겠다고 하시며 뜨거운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태을민씨의 고향은 서울이다. 여기서 어려서부터 신문배달과 포장공, 시계수리공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그는 19살 때에 연극에 뜻을 두고 ≪동양극장≫에 들어갔으나 일제의 박해로 연극을 할 수 없었다.

조국이 광복된 후에도 이남땅에서는 태씨가 마음껏 연극을 해보려던 꿈을 실현할 수 없었다.

울분에 몸부림치던 태씨는 이북의 무대들에서 수많은 연극들이 공연된다는 소식을 듣고 48년 7월 월북을 단행해 언제나 경모해 온 위대한 주석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그의 예술적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게 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태씨에게 온갖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어느해인가 태씨가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57돌을 경축하기 위해 만든 경희극에 출연하고 있던 때 친히 만나주신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주역을 담당한 그의 음성이 약간 갈린 것까지 헤아려보시고 병원에 가서 곧 치료받도록 승용차까지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언제인가 일부 일꾼들이 태씨가 육체적 조건이 특이하고 목소리가 유다르기 때문에 정극이 기본인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며 그를 무대에서 떼어내려 한 적이 있었다.

일꾼의 말을 들으신 영수님께서는 그 동무는 육체적 조건과 연기와 화술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특이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지 그가 평범한 보통배우라면 결코 그처럼 귀중한 존재로 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다 뒤져도 그런 특기를 가진 훌륭한 배우를 어데서 찾아내겠는가, 그 동무야말로 우리가 아껴야 할 둘도 없는 보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연극배우가 아니라 영화배우로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게 하라고 이르시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태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다 한다.

≪나는 두번 다시 세상에 태어났다. 나에게 소생의 기쁨,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신 분은 오로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밖에 없다. 내 어찌 재생의 은인, 자애로운 스승을 잊을 수 있겠는가. 위대한 주석님과 경애하는 영수님께 한몸을 바쳐 깨끗이 살겠다.≫

위대한 주석님과 영수님께서는 태씨가 순직하였을 때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아까운 사람을 잃었다고 못내 애석해 하시면서 신문에 부고도 내게 하시고 그의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치르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었으며 그를 신미동 애국열사릉에 안치하도록 해주시었다.

그리고 그의 유가족들의 생활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다.

김정일영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그의 안해는 남편이 섰던 초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의 자식 6남매모두는 나라의 중요한 초소에서 일하고 있다. 세상을 떠난 태을민에 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웠는가 하는 것은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 때에 있었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1970년 11월2일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당대회 개회사를 하시면서 그동안 조국과 혁명을 위해 끝없이 충성다해오다 희생된 혁명열사들과 국가공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그들을 추모해주시었는데 그 명단에는 태을민씨도 들어있었다.

이처럼 태을민씨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린 행운아였다.

송시

겨레사랑 선군길이여

자국자국
가슴에 새겨 봅니다
걸음걸음
경향이 받드옵니다

총대를 앞세워
군대를 앞세워
김정일장군님 몸소 헤쳐가시는
선군길, 선군길!

장군님 이 길에 계시여
우리 마음 산악처럼 든든합니다
북침 을 짖어대는 미군기의 굉음도
모기소리만큼이나 가소롭습니다

장군님 이 길을 걸으시여
남해도 파도쳐 환호합니다
태택산 한라산도 키돋음하고
이남민중 그 길을 우러릅니다

아, 이북만이 아니라
이남도 지켜주는 분이여서
한반도를 한품에 따뜻이 안으시며
장군님 걸으시는 선군길이여서

자주의 활로를 열어주는 길
평화의 봄빛을 안겨주는 길
통일의 새날을 밝혀주는 길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는 길

겨레사랑 층층히 쌓여
이 길에 우뚝 솟아오르는 것은
정녕 통일의 금자탑입니다
천만년 길이 빛날 **김정일**조국입니다

흠모

위인에 대한 인류의 격찬

뜻 깊은 태양절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하였던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대표들, 예술단체들과 예술인들속에서 위인칭송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문화 및 관광성 부상 스리 하스딴또는 **김일성**주석은 세계정치의 원로,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하면서 그이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 온 행성이 영원히 받들어 모셔야 할 희세의 걸출한 위인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에꽈도르 ≪볼룬따드≫출판사 사장 움베르또 오르띠스 플로레스는 **김일성**주석은 사상과 업적, 덕망에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견줄수 없는 가장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간이시라고 말하였다.

세계평화리사회 명예위원장 로메쉬 챤드라는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신 주석의 업적은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들에서 높이 울린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로씨야의 시인이 창작한 가요 ≪**김일성**, 그이는 세기의 영재≫, 마다가스까르의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가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등은 만민의 태양으로 칭송 받고 계시는 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격찬의 분출이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쾨펜하븐에서 20일 오늘의 조선과 자주성에 관한 유럽지역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스웨리예,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그, 에스빠냐, 프랑스, 핀란드, 도이췰란드, 영국, 말따, 이딸리아, 오스트리아, 뽀르뚜갈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책임일군들과 대표들, 단마르크의 정계, 사회계, 출판보도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 조선위원회 대표단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북유럽협조위원회 서기장인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은 보고에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로, 위인으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였으며 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태양의 력사는 오늘 절세의 위인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세기와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이어 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사상과 리론, 풍격과 덕망에서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일성**주석의 뛰여난 정치방식과 령도업적은 앞으로 영원히 세계의 모든 국가지도자들의 귀감으로 될것이며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영향을 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김정일**총비서의 선군정치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한 가장 성공적인 정치방식으로, 만능의 보검으로 간주하고 높이 칭송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이의 선군정치야말로 최고의 자주정치, 사회주의정치방식이라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동지애의 천만리 (2)

노동신문 정론 - 주체91, 4월 29일

그 어떤 시련의 가시밭길도 함께 헤쳐 갈 수 있는 충직한 전우, 믿음직한 동행자들을 찾아 수령님 걸으시였던 오두막길과 같은 길도 수없이 걸으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자신과 어깨 겯고 어려운 이 길을 끝까지 가자는 믿음을 담아 인민군지휘성원들 한사람한사람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그 뜻 깊은 뒤장에 백두산무게가 실린 자신의 존함을 친필로 남겨 주시면서 그들을 어제날의 ≪ㅌ.ㄷ≫성원들처럼 자신의 곁에 세워 주시였다.

평범한 날의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니였다. 피눈물의 아픔과 만단의 뜻을 안으시고 함께 찍으신 이 력사의 사진들은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수령님 남기신 ≪너는 김혁, 나는 성주≫라는 글발과 같은 사랑과 믿음의 피 더운 증서였다.

바로 그렇게 하시고 걸으신 길이 20여만리의 전선길이였고 바로 그렇게 하시고 높이 드신것이 선군의 기치였다.

사랑으로부터 잡은 총대, 여기에 선군혁명의 무한한 생명력과 특출한 매력이 있다.

선군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동지적인 위업이다. 황금은 동지를 배척하지만 총대는 동지를 찾는다. 진짜 피를 나눌 동지들이 잡는것이 바로 총대이다.

선군이야말로 정의를 갈망하는 열혈의 남아들이 서로 어깨 겯고 나서 뜻을 나누고 심장의 피를 한껏 뿌려 볼만 한 혁명중의 혁명이다.

지구에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떠돈다고 하던 때 그에 매혹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뜻을 합치며 프로레타리아혁명에 뛰여들었었다.

그러나 오늘의 선군위업과 같이 문자 그대로 동지다운 동지를 부르는 혁명, 동지의 신념과 진한 피로써만 펼쳐 갈수 있는 위대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위업은 없다.

총대에는 피가 없다.

바로 그 차거운 총대에 인간의 고결한 사상과 뜨거운 피가 흐르게 한것이 선군이다. 그렇다. 우리의 총대에는 피가 있고 심장이 있다. 력사상 가장 정의로운 인간들이 믿음과 의리로 높이 든 총대이기에 우리의 선군은 단순한 군사만능정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진실한 사랑의 정치, 심장의 정치, 정의의 정치로 력사무대에 떠올랐다.

선군, 그것은 이 세상 제일 강한 총대와 제일 뜨거운 피가 하나로 결합된 한없이 위대한것이여서 그것이 울린 력사의 진동은 그리도 큰것이였고 그것이 안아 올린 새 시대의 아침은 그렇듯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아니랴.

(2)

천만심장을 울리는 피어린 동지애의 년대기가 엮어 지고 있다.

백두산장군의 선군동지애는 주체혁명사에 불굴의 영웅세대를 낸은 가장 성스럽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동지애이다.

하나의 새로운 위업을 개척한다는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선군은 주체사상의 창시와 같은 세기적인 위업의 새로운 개척이지만 이 길은 보통의 각오와 용단으로 갈수 있는것이 아니다. 세계도 리해하지 못하고 인민들에게도 선뜻 말하기 힘들었던 이 길,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서는 갈수 없는 이 길, 그것은 말그대로 뜻을 나누어도 가슴을 열어 헤치고 온넋을 바쳐 절대적으로 따라 서는 사람, 운명을 같이 해도 피와 목숨을 내대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만이 갈수 있는 길이였다.

물론 가렬한 백병전은 없었고 피는 흐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불 타는 전장에서보다 더 뜨거운 피를 동지와 나누어야 했고 더 처절한 시련을 동지와 함께 헤쳐야 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선군동지애는 죽음을 각오한 동지애라고 말할수 있다. 세상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사람들이 나누는 사상과 뜻만큼 위대한 세계가 없고 그들의 사랑과 믿음관계처럼 고결한 인간관계, 동지관계는 없다.

참으로 력사가 아직 그 어느 시대에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랑과 믿음의 최고높이, 동지애의 최고절정이였다.

지난해 20여일간의 긴 나날 로씨야방문길에 오르셨던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자나깨나 제일 그리워 오는것은 조국에 대한 생각,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정이였다. 그 유별한 심정이 쌓이고 쌓이시여 우리 장군님께서는 모스크바를 떠나 렬차가 조국으로 점점 가까와 오던 어느 날 밤에는 조용히 눈물까지 지으시였다.

아, 정녕 동지가 무엇이기에 걸출한 세계의 위인이시며 천하무적의 명장이신 그이께서 그리도 눈굽까지 적시시며 그리움에 애를 끓이시였던가.

후날 조국에 돌아 오신 그이께서는 그때의 일을 매우 감동깊이 외우시면서 내가 왜 그처럼 동지를 그리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어려운 선군을 하면서 나와 피눈물도 같이 흘리고 죽음의 고비도 같이 넘으면서 생사를 같이 한 전우들이고 고마운 인민이였기때문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모진 시련의 눈보라가 이 땅을 휩쓸며 지나갔던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이라는 노래가 맹세의 울림이 아니라 준엄한 현실이 되여 매 사람의 신념의 문을 두드렸다.

진짜비가 내렸고 진짜눈보라가 쳤다.

그 ≪비≫는 최대의 슬픔과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온 나라를 쓰러뜨린 피눈물이였고 그 ≪눈보라≫는 제국주의가 몰아 온 압살광풍이였다.

연설 한마디로 동지가 되는것이 아니였다. 붉은기앞에서 맹세의 주먹을 높이 드는것으로 의리의 인간이 되는것이 아니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피눈물의 바다에도 다같이 잠겨 보고 포성 없는 전쟁의 불속도 어깨 겯고 헤쳐 보고 기아와 추위, 엄혹한 자연재해로 인한 시련의 ≪재≫속에도 함께 묻혀 보면서 동지가 무엇인가를 뼈에 새긴 세대였다.

무슨 사지판인들 넘지 않았으랴.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어제날 천교령의 눈보라길과 같은 사생결단의 언덕을 몇번이나 넘으셔야 했으며 비 오고 바람 부는 전선길우에서 동지들과 한줌의 쉐기밥도 나누어 드시고 때로는 가슴 저리게 닥쳐 드는 이루 상상할수 없는 고통과 슬픔도 말없이 감당하셔야 했다.

1997년은 ≪고난의 행군≫력사에서 사람들의 신념에 대한 최후의 검증을 한 가장 처절한 시련의 해였다.

공장들이 하나둘 숨이 죽고 거리에 불빛이 꺼지고 무서운 기아가 더욱 참혹하게 휩쓸던 그때 비겁한 배신자도 나왔다.

혁명이냐 투항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운명의 최후계선에서 조국이 힘겨운 숨을 쉬고 있던 그해의 4월 우리 장군님께서는 1211고지에 오르시였다.

조국의 마지막차단봉을 열고 지뢰밭외통길로 불이 나게 야전차를 몰아 단숨에 오르신 이날의 고지길은 여느날의 전선시찰과 달랐다. 이른 아침 한공기의 죽을 드신 그이께서 하늘중천 구름우에 떠 있는 온정령과 순갑령을 넘고 또 직동령과 매봉을 넘어 불원천리 부디 이곳을 찾으신것은 전사들의 가슴에 신념과 믿음의 억센 기둥을 세워 주기 위해서였다.

백두산호랑이가 1211고지에 나왔다!

이 한마디 소식만으로도 전 전선이 눈을 번쩍 떴고 쓰러지던 사람들이 새힘을 가다듬고 일어 섰다.

몸소 한 로장령을 부축하여 함께 팔을 끼고 고지의 정점까지 오르시고 병사들에게 화선담배도 나누어 주신 우리 장군님,

저켠 너머에서 어지럽게 날아 드는 넉두리를 온 산발을 쩡쩡 울리는 호탕한 웃음소리로 가볍게 날려 보내시며 억센 투지와 용맹을 안겨 주신 그날의 거룩한 모습,

긴 연설은 없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심장에서 울려 나오는 ≪적기가≫를 들었으며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병사의 신념을 더 억세게 세워 주시려는 친근한 어버이의 각별한 손길을 느꼈다.

그이께서는 바로 신념과 총대가 부딪치는 여기 조국의 고지에 올라 압살과 유혹의 불을 토하는 적의 ≪화구≫를 한몸으로 막아 내시였으며 전 전선을 믿음과 의리의 성새로 일떠세우시였다.

참으로 신념과 동지애의 1211고지였다.

전선길의 한굽이한굽이, 선군령도의 날과 달, 낮과 밤이 다 이렇게 이어 졌다.

아, 얼마나 불덩이 같은 인간이시였는가.

병사들과 인민들은 장군님을 위하여 결사옹위의 총폭탄이 되였다면 장군님께서는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하여 희생도 각오하고 나서신 육탄동지가 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도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입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최고사령관이시지만 병사가 되시여 병사들과 고락을 나누신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전우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병사들을 찾아 믿음의 원정, 그리움의 원정, 동지애의 원정을 하시였다.

자그마한 단정에 오르시여 수십메터의 파도를 헤치며 기어이 찾아 가셨던 초도,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오신단 말입니까라고 눈물을 비 오듯 쏟는 병사들에게 동무들이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왔다고 가슴치는 말씀을 남기신 그날의 이야기가 생생히 살아 온다.

군사분리선 코앞에까지 나가시여 최전방의 병사들에게 자주적근위병의 신념과 기개를 안겨 주신 판문점의 안개길, 동무들이 정 이러면 난 포차라도 끌고 가겠소라고 하시며 주저없이 달음쳐 오르신 151굽이의 오성산칼벼랑길!

말하라, 너 전설의 길들이여,

어찌하여 우리의 장군은 목숨을 내대지 않고서는 갈수 없는 그 길을 그리도 쉬임없이 가고 또 가시였던가.

사랑이였다.

오직 병사들에 대한 억제할수 없는 사랑, 사무치는 그리움이였다. 사랑이 아니였다면 그렇게 위험한 곳에 한몸을 내대시며 가실수 없다. 그리움이 아니였다면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많은 곳을 찾아 가실수 없다. 앞에는 전선 또 전선이여도 거기엔 병사들이 있기에, 그 길은 험준한 칼벼랑길이여도 거기엔 병사들이 있기에 가고 또 가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병사와 동지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우리 장군님께서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몸소 붓을 드시고 자신의 열렬한 마음을 터치시며 동지에 대한 시구절까지 적어 보시였으랴.

뜻을 나누는 동지를 생각하며 한자, 끝까지 생사를 같이 할 진실한 전우를 그리며 또 한자

어찌 종이우에 남긴 몇줄의 글이였겠는가. 그것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인간이신 우리 장군님의 심장의 고백이였다.

병사, 참으로 얼마나 미더운 전우였는가.

선군이라는 초행길을 열어 가야 하는 그 어려웠던 세월에 병사만큼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동지는 없었다.

어버이수령님 못 견디게 그리우실 때도 병사가 보였고 쓰러지는 인민의 정상에 가슴이 쓰려 나실 때도 병사가 고무와 격려의 힘이 되였고 너무 힘에 부쳐 한걸음 지체하고 싶으실 때도 다름 아닌 병사가 곁에 와 마음의 짐을 덜어 주었다.

온넋을 바쳐 사랑하고 싶으셨다.

심장을 바쳐 사랑하고 싶으셨다.

자신과 함께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남 먼저 목숨 바칠 동지들에게 주는것이여서 그 사랑과 믿음은 전선참호에서 최후의 결사전을 앞두고 나누는 인사와 같이 열렬했고 군기를 피로 적시며 사선천리를 헤쳐 온 전우들사이에 주고받는 정과 같이 눈물겨웠다. 최고사령관과 총대동지들사이에 주고받은 죽음을 각오한 동지애는 우리 력사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였다. 죽음을 각오한 총대동지애는 피를 나눈 혈육동지를 낳았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내가 전선에 자주 가는것을 두고 동무들이 놀라와 하는데 나는 나의 병사, 나의 아들들을 보려고 전선에 간다고 말씀하신다.

나의 아들,

우리의 선군길에는 얼마나 이 말이 많이도 울렸던가.

최고사령관과 병사의 동지관계, 전우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혈육관계로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 졌다.

≪나와 너≫가 ≪나와 나≫로 되자면 뜻을 같이 할뿐아니라 피를 나누어야 한다.

동지관계가 혈연적인 관계로까지 깊어 질 때 진짜 죽음도 함께 할수 있다.

예로부터 포수들이 범을 잡으러 산에 들어 갈 때 자기의 자식만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말해 주는것처럼 생사를 가르는 마당에서는 피를 따른다.

장군님과 총대동지들사이에 굳건히 이어

진 피란 사상을 같이 하는 피, 운명을 같이 하는 피, 최후를 같이 하는 피다.

얼마나 사랑으로 불 탄 세월이였던가.

≪고난의 행군≫의 가장 어려웠던 해 자신께서는 쪽잠과 한덩이의 가마치로 전선질주를 하시면서도 누구보다 제일먼저 목숨을 바칠 동무들이라고 뜨겁게 불러 주시며 인민군지휘성원들을 위하여 특별휴양을 마련해 주신 이야기, 동무들이 나를 기다리는것 같아 새벽 1시에 누웠다가 4시에 일어 나 이곳으로 떠나왔다고, 밤은 캄캄하고 눈이 내려 길은 험하였지만 떠나는 나의 마음은 더없이 기뻤다고 하시며 병사들을 찾아 오셨던 그날의 최전연길

그이께서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셨다가 다시 일어 나 떠나오신 길, 병사들이 눈에 자꾸 밟혀 와 초소를 떠나오시다가 다시 되돌아 가신 길들은 과연 그 얼마이였던가.

얼마전 송암동굴을 찾으시여 석수 흐르는 굴속길을 일일이 다 밟아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걷기도 힘든데 병사들이 이런것을 건설하자니 오죽했겠는가, 동무들이 나를 걱정하는데 나는 이렇게 걸으며 병사들의 수고를 느끼고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그러시면서 며해전 무지개동굴개건때 어둠속에서 정대로 바위를 까내는 병사들의 곁을 그냥 지나실수 없어 자동차전조등을 비쳐 주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신 그날의 뜨거운 말씀, 찾으시는 중대마다 안겨 주신 백두산총대는 병사들에게 자신의 육체의 한부분, 한점의 피를 남겨 두신것이였고 매번 어김없이 찍어 주시는 기념사진은 자신과 병사들을 한식솔로 이어 놓으시는 최고사령관식솔의 뜻 깊은 ≪가족사진≫이였으며 언제나 들어 주시는 중대음악회는 병사들과 말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대화의 한순간이였다.

혈육은 타고 난다.

사상은 나누어도 혈육으로서의 피는 나눌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육친의 피보다 더 진한 피를 병사들과 나누심으로써 전군을 자신의 아들로, 최고사령관대식솔로 만들어 놓으시였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뒤집어 놓은 위대한 인간의 심장의 기적이다.

최고사령관과 병사의 군직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혈육관계로 전환시킨 여기에 선군동지애의 특별한 세계가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무적의 장수힘을 지닌 호랑이병사들을 자신과 사상을 같이 하는 신념의 근위병, 자신과 피줄을 같이 하는 충직한 아들로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우리 군대의 위력은 천백배로 폭발하게 되였다.

력사에 병사의 심장을 움직인 이런 열의 장군, 이런 정의최고사령관이 언제 있어 보았던가. 사랑과 믿음으로 불 타는 위대한 심장의 피를 뿌리시고 정과 열로 온 나라를 한품에 안으시여 충직한 동지강군, 동지애의 조국을 일떠세우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 력사는 머리 숙여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3)

지구의 진동과 같은 무서운 힘이 폭발했다. 죽음을 각오한 동지의 신념이 얼마나 고상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 위력이 얼마나 강대한가를 온 세계가 커다란 충격속에 보았다.

다박솔언덕의 가슴 저리던 피눈물이 세계의 마음과 발걸음을 평양에로 부르는 화려한 아리랑춤노래로 바뀌고 그 누가 몰라준대도 희망 안고 가고 또 가야 했던 선군길이 이제는 세계가 다 아는 공인된 진리, 력사의 대통로가 되였다.

우리는 모든것을 이겨 냈다.

다진 맹세 끝까지 변치 않은 우리는 피눈물의 바다우에 수령영생의 붉은기를 더 높이 휘날렸고 포성 없는 전쟁의 불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굶주림과 추위, 참혹한 자연재해로 인한 시련의 ≪재더미≫를 헤치고 강성대국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처절한 비애의 바다에서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며 선군의 첫 기슭을 떠났던 우리가 오늘은 세계자주와 평화의 수호자로, 7천만 겨레의 가슴에 갖하나갔의 노래를 안겨 준 태양민족의 긍지 높은 선구자로 되였다. 불바람 휘몰아 쳐와도 생사를 같이 한 그 만단의 력사를 눈물겹게 추억할 신성한 권리가, 우리는 백두산장군의 전우이며 동지라고 떳떳이 말할 크나큰 영광이 우리 세대에 차례졌다.

피어린 력사의 검증만을 이겨 내지 않았다. 폭풍치는 선군장정과 함께 백두산동지애의 또 하나의 새 력사, 새로운 한세대가 탄생하였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동지애가 보다 높은 경지에 오르고 강성대국, 선군혁명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혼연일체의 단수와 위력이 비상히 승화되였다.

하나의 시대어가 가슴을 친다.

총폭탄,

8명의 군관형제들로부터 시작된 이 말은 선군위업과 함께 조선의 정신, 우리 시대의 삶의 구호가 되였다. 어디서나 울리고 누구나 말한다. 전선에서도 울리고 후방에서도 울리며 병사도 말하고 평범한 인민도 말한다. 지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빨찌산동지애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정신을 고귀한 전통으로 물려 주었다. 오늘의 선군동지애는 죽어도 총폭탄이 되여 장군님을 결사옹위하자는 비장하고도 아름다운 동지관을 낳았다. 몇명의 투사나 영웅들만이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총폭탄이 되고 모든 인민이 총폭탄이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자는 바로 여기에 선군시대 동지애의 최고높이가 있다.

시대가 높은 단계에 올랐다. 사상과 뜻이 일심이여야 할뿐아니라 피와 정을 함께 하는 완전무결한 혼연일체, 죽음도 각오한 단결로 시대의 높이가 달라 졌다.

천만의 총폭탄동지가 눈보라폭풍길을 달렸다. 맨주먹으로 물길굴을 뚫은 안변땅의 혁명적군인정신과 함께 한해가 왔고 최후의 순간 평양하늘을 우러러 ≪아, 장군님≫을 목 메여 부르며 자폭한 용사들의 위훈으로 또 한해가 흘러 갔다. 적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기어이 장군님품으로 돌아 온 신념의 강자들, 허기져 쓰러지면서도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연 자강도사람들,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강성대국의 대통로를 뚫은 ≪마대전≫의 청년투사들과 초인간적인 결사의 용맹으로 세계를 놀래운 마라손영웅의 이야기를 펼치며 일곱해가 흘러 갔다.

어제날의 카륜의 언덕은 보이지 않았고 눈보라치는 백두밀림의 행군길은 없었다.

그러나 선군나팔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과 같은 제2의 백두산장군의 노래를 지어 부른 오늘의 김혁이도 있었고 최고사령관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온 오늘의 ≪ㅌ.ㄷ≫성원들도 있었으며 혁명의 수뇌부의 안녕을 지켜 서리발총검을 높이 든 오늘의 오중흡7련대들도 있었다.

포성은 울리지 않았어도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오늘의 리수복이들도 있었으며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부르며 ≪적후천리≫ 먼 길을 굴함없이 걸어 간 오늘의 안영애들도 있었다.

고난의 피눈물에도 절어 보고 포성 없는 전쟁의 불속에도 타본 선군장정길에서 또 한세대의 빨찌산동지, 백두산동지들이 태여났다.

우리 수령님의 빨찌산동지들은 총대로 빼앗긴 나라를 찾고 이 땅에 사회주의를 일떠 세우는 주체시대의 개척자들이였다면 우리 장군님의 선군동지들은 총대를 앞세워 조국도 수호하고 강성대국도 일떠세우는 새로운 또 한시대의 개척영웅들이다.

오늘 우리가 저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영생의 모습으로 서 있는 수령님시대의 동지들을 보며 흘러 간 조선혁명의 준엄한 세월을 더듬어 보듯이 먼 후날 우리 후대들은 오늘의 장군님시대의 충신전사들의 모습을 보며 ≪고난의 행군≫과 선군길을 눈물겹게 추억하게 될것이다.

그렇다. 우리 세대는 이 땅에 주체혁명의 가장 눈 부신 기념비로써 선군동지애의 실록을 써놓았으며 우리 후손들이 대를 이어 계승해 갈수 있는 선군동지애의 위대한 전통을 마련하였다.

혁명의 붉은기는 더 높이 휘날리고 있으며 장군님 따라 피눈물의 언덕을 떠난 선군천만리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계속된다. 온 지구땅덩이를 식민지화하려는 세계화전쟁열이 불안과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가혹한 사생결단의 사지판을 며십번이나 넘어 온 우리 세대앞에는 이제 그보다 더 간고한 시련이 닥쳐 올수도 있다. 땅우엔 아리랑춤바다가 흘러 가도 우리 가슴속엔 피눈물언덕에서 불렀던 ≪동지애의 노래≫가 더 강렬하게, 더 사무치게 울려 온다.

동지애가 없다면 백두산도 없고 붉은기도 없으며 조선도 없다.

동지애만 있다면 우리는 백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 날수 있고 력사의 그 어떤 기적도 다 창조할수 있다.

조선이 없다면 지구도 없다는 우리의 배짱밑에도 바로 백두산동지애가 있고 둘이 합쳐 더 큰 하나가 될 민족, 강성대국의 21세기를 내다보는 우리의 대륙적인 포부밑에도 다름 아닌 백두산동지애가 있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던 동지란 말이 백두산대국의 선군바람과 함께 다시금 세계에 울리기 시작하였다.

자본의 아성에 첫 불을 지른 빠리콤뮨에 이어 ≪아브로라≫호의 포성이 울린 10월혁명과 함께 동지란 말이 세계에 펴져 갔었다. 오늘날 침략과 억압의 원흉인 제국주의의 세계화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제2의 빠리콤뮨≫과 같은 조선의 선군폭풍은 국경을 넘어 수많은 동지를 낳고 있다. 어제날의 동지는 프로레타리아의 단결을 호소한 마치동지라면 오늘의 동지는 정의를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고 나서는 총대동지이다. 마치동지보다 총대동지가 더 세다. 이제는 인류의 정의를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명을 개척할수 있는 21세기의 선구자, 자주위업의 강력한 주력군이 준비되였다.

평양을 방문하였던 로씨야의 친선사절인 뽈리꼽스끼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에서 부르는 노래 ≪조선의 모습≫을 듣고 나서 당신들은 오늘의 세계에서 제일 강한 인민이다, 왜냐하면 선군정치에 령도자와 인민의 단결을 합친 힘이면 무서울것이 없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단결이 조선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은 바로 **김정일**동지의 모습이라고 했다.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피를 받아 안고 장군님의 모습과 기상을 그대로 닮은 장군님의 생명체가 바로 우리의 혼연일체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의지적단합만이 아니라 피와 목숨까지 함께 나누는 이런 최강도의 총대동지의 위력을 당해 낼 힘이 과연 이 지구우에 있을텐가.

제국주의는 아직 백두산군대, 붉은기조선의 진짜힘을 다는 모른다.

아무리 거대한 핵무기라고 해도 그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백두산동지애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조선과 맞서려면 지구상의 최첨단무기를 총 발동해도 쉽게 이길수 없는 전대미문의 무력전을 해야 하는 동시에 또 하나의 무기 - 동지애라는 미증유의 정신력과 대결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세계에는 이런 무기를 가진 나라도 없고 또 이에 맞설만 한 적도 없다.

맹목적인 군률이나 비과학적인 신앙심으로 묶어 진 연약한 군대와 맞서고도 전쟁이라고 소리치는 이른바 힘의 제국의 오만성이 가소롭기 그지없다.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병사만이 아닌 전체 인민이 총대동지로 철통같이 뭉치고 뜻도 하나, 피도 하나가 된 우리의 선군단결의 힘을 당할 자 이 하늘아래 없다.

조선은 땅이 넓고 재부가 많아 대국이 아니라 선군정치가 위대하고 단결이 불패하여 강성대국이다.

어버이수령님 령전에서 피눈물의 맹세를 안고 시작한 우리의 성스러운 선군혁명위업의 운명과 성패는 령도자와 전사들의 혁명적관계가 얼마나 굳건한가에 달려 있다.

지난 날 몇명의 동지들로부터 ≪ㅌ.ㄷ≫의 기치가 솟아 오르고 백두밀림의 빨찌산동지들로부터 항일혁명전이 펼쳐 졌다면 오늘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최고사령관의 혁명전우, 혁명동지가 되여 선군시대의 승리의 진군로를 열어 나가고 있다. 몇명의 동지만 있어도 천하를 다스릴수 있는데야 천만의 동지이면 무서운것 무엇이랴.

전군, 전민의 동지화, 이것은 새로운 력사적단계인 선군시대의 높은 요구이며 우리 혼연일체의 전면적완성의 근본담보이다.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의 휘하에 먼저 총대동지들이 서고 그뒤에 마치와 낫, 붓대동지들이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룰 때 우리에겐 두려운 고난이 없고 무서운 적이 없다.

동지, 결코 가벼운 부름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심장을 바침이 없이, 총대를 사랑함이 없이 그이의 동지이고 그이의 아들이라 감히 말하지 마시라.

백두산냄새, 빨찌산냄새가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동지가 되자는것이 우리 시대 천만전사들의 강렬한 열망이다. 비록 군복은 입지 않았어도 전호가에 서 있는 병사의 군인정신으로 사는 사람, 변하지 않는 총대와 같이 오직 장군님의 사상과 신념의 명중탄이 되는 충신전사가 바로 오늘의 선군시대의 참된 동지이다.

우리의 위대한 동지 **김정일**장군님이시여,

손 들어 그 어느 길이나 가리켜 주시라.

그 어떤 명령이나 우리앞에 내려 주시라.

죽음을 각오한 동지의 대오로 뭉친 천만의 군대와 인민은 활화산의 불길처럼 솟구쳐 일어 나 그 어떤 사지판이라도 웃으며 따라 나서리라.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위대한 태양을 위해 기꺼이 바쳐 싸우는 영원한 백두산의 전우, 백두산의 아들이 되리라.

피어린 7년에 이어 또다시 가야 할 선군천만리길을 내다보며, 21세기 주체위업의 최후승리와 우리의 값 높은 삶을 위하여 천만의 군대와 인민은 심장으로 합창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장군님을 우러러 보네.

(끝)

≪특강≫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 제6회 학사 림종수 선생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두시간에 걸쳐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사상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라는데 대해 학습했습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사상적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런 제목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를 위한 오랜 실천전 경험은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방법에 관한 문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전도와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되기 전까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인 지도방법 문제가 그 어디에도 밝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계급의 첫 혁명사상인 맑스주의는 그 구성을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큼 대중영도방법 문제를 혁명의 지도사상에서 뗄 수 없는 독자적인 분야로 설정하기 못했고 사회주의 건설은 어떻게 영도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문제에 대해 제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맑스주의를 계승한 레닌주의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다음 현실적으로 부닥친 사회주의 사회관리에 대한 문제를 단편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습니다. 레닌은 갓 승리한 러시아의 사회를 관리운영하자면 계산과 통계, 규율과 독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 관리에서도 지배인위임관리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고 지어는 자본주의 기업합리화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던 테일러 제도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올바른 영도방법을 찾지 못한데도 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오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해 밝혀진 가장 올바른 주체의 영도방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처음부터 자기위력과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하면서 가장 성과적으로 건설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위업 수행과 정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방법에 대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3대 구성체계로 정립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이 밝힌 주체의 대중영도방법은 한마디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영도방법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영도방법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인민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 방법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주체의 대중영도방법에는 주체사상에 의해 밝혀진 혁명적 군중관을 기초로 하는 대중영도의 본질과 원칙, 영도체계,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 있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해 대중영도의 본질과 원칙, 영도체계,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 등 대중영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였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의 영도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해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우선 주체의 대중영도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사회주의입니다. 주체의 대중영도원칙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수행하며 인민적 군중노선을 관철하는 두 측면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영도의 기본원칙의 하나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계급의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써의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입니다. 노동계급의 수령은 또한 지도사상을 창시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밝혀주는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의 주체를 키우며 과학적인 전력전술을 제시해서 인민대중의 혁명과 건설에로 영도합니다. 이와함께 수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한 후계자 문제를 빛나게 해결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원칙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서 가장 빛나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영도를 받게 됨으로써 사회주의의 새역사를 승리적으로 개척하여 올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성스러운 주체위업을 개척하시었습니다. 그리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올바른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여 사회주의 승리의 곧바른 길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영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인민은 또한 어버이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해 나가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를 받게 됨으로써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대를 이어 굳건히 고수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으로 의식화 조직화된 강력한 사회주의의 주체로 자라났으며 겹쌓이는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습니다. 오늘 끝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전적으로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후의 정력적인 활동과 현명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며 사회주의와 생사운명을 같이 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영도의 기본 원칙의 다른 하나는 혁명적 군중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는 것입니다. 혁명적 군중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혁명이 군중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결심과 지혜에 의거해서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체의 영도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본원리에 의거함으로써 혁명적 군중노선을 관철하는 것을 영도원칙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합니다.

혁명적 군중노선을 관철하는데 나서는 기본요구는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것을 실현하는 입장에 서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인 인민대중에 의거해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혁명적 군중노선의 원칙을 철저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인민대중 중심의 참다운 조선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발전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다음으로 가장 올바른 영도체계를 구현해서 건설되고 관리운영되는 사회주의입니다. 주체의 영도체계는 수령의 영도체계, 수령의 후계자의 지도체계,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는 당과 군인 인전대에 대한 지도와 역할의 지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대중과 지도의 결합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상과 행동의 일치를 확고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령의 후계자 문제를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수령의 후계자의 지도체계를 확고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 문제는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의 정치적 수령으로써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할 정치적 후계자로 높이 추대함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자주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는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시고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세련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위대한 영도자, 자주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가시는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또한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구현해서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적 사업방법은 모든 사업에서 사람들을 깨우쳐 주는 사업을 첫 공정으로 해서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 웃기관 일군들이 아랫기관에 내려가 아랫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며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아랫일군들과 힘을 합쳐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며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방법, 사회적으로 대중운동을 적극 벌리는 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혁명적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해서 사업하는 사업방법입니다.

주체사상이 밝힌 인민적 사업작풍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기풍,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 기풍,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 기풍, 원칙적이며 공명정대한 사업기풍,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 기풍, 겸손하고 소박하며 결백한 품성입니다. 인민적 사업작풍은 일군들이 군중에 올라선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인민대중속에서 나와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심부름꾼으로서 복무자로서 언제나 인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작풍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사회주의 사회관리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며 사회주의와 생사운명을 같이 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 사회관리에서 주체의 영도방법이 철저히 확립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혁명의 기치를 강화하여 건설하고 공고 발전하는 사회주의≫ 이런 제목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반미와 청년학생, ≪F-15K≫ 도입반대투쟁

최근들어 우리 청년학생들속에서 반미운동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더욱 활기있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현규씨를 모시고 지금 경향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미투쟁방도들을 조명해보면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반미운동을 활성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얘기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반미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힘차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북침전쟁무기인 ≪F-15K≫도입을 반대하는 투쟁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F-15K≫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관해 얘기 나누려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속에서 ≪F-15K≫도입반대투쟁이 어떻게 벌여져왔는지 그에 관해 먼저 말씀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규 : 지금 온 경향을 휩쓰는 ≪F-15K≫도입반대투쟁은 부시행정부출범이후 더욱 악랄하게 강행되고 있는 미국의 무기강매압력반대투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청년학생들이 부시방한반대투쟁의 일환으로 미국대사관과 여의도역에 있는 미국보잉사간판점거투쟁을 벌인 것을 통해서도 ≪F-15K≫도입을 반대하는 각계 민중의 투쟁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잘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보잉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를 강요하는 항의의 대상이다≫라고 한 것은 결코 우연치 않습니다.

이같은 투쟁은 이 땅의 호전세력이 미국의 무기강매압력에 굴종해서 차세대전투기로 ≪F-15K≫기를 선정하려고 책동하는 것을 계기로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미국전투기도입을 반대하는 농성과 시위투쟁이 여러 운동단체회원들의 참여속에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F-15K≫도입을 반대하는 각계층 운동단체들의 성명이 연일 울려나왔으며 인터넷게시판들에는 ≪한국이 보잉사의 재고창구인가≫, ≪≪F-15K≫선정은 실력 안되는 학생을 억지로 합격시킨 꼴≫이라는 내용의 글이 연속 올라왔습니다.

사회자 : 그런속에서 한총련은 백만청년학도 모두가 차세대전투기도입의 전면폐지와 북침전쟁책동분쇄를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설 것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F-15K≫기종선정은 6.15공동선언발표후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는 민족사적 대세에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필요되는 건 민족적 화해분위기이지 같은 민족을 해칠 살인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수십개의 전투기를 이 땅에 들이밀려하는 건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덮씌우려는, 그래서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미국의 ≪F-15K≫전투기강매압력에는 우리 민중의 혈세를 짜내어 저들 군수업체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교활한 계책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대학가와 노동대중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는 ≪종이비행기≫라는 가요에도 쓰여져 있지만 1970년대에 설계, 개발된 ≪F-15K≫전투기는 차세대는 고사하고 현세대에서도 그 사용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고철덩어리가 아닙니까. 지금 사회일각에서 미군이 용도폐기한 폐물전투기를 떠넘긴다는 주장이 일고 있고 ≪F-15K≫전투기를 예전 ≪독수리≫에 비유하는 건 우연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같은 전투기를 팔아먹으려고 암암리에 압력을 가하면서 기업폐쇄위기에 놓인 ≪F-15K≫생산업체를 비롯하여 군수업체들에 막대한 치부를 가져다주려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 군사력증강에 비낀 미국의 검은 속셈을 들추어볼수록 미군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재난밖에 입을 것이 없다는 것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호전세력은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차세대전투기기종으로 ≪F-15K≫기를 확정하는 매국행위를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투쟁을 벌여나가야겠는지 계속 말씀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규 :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학생들은 미국의 무기강매압력의 저의를 각계 민중들속에 알려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줄 압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성명과 성토문 그리고 백서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문서들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시위와 집회들을 줄기차게 전개하여 ≪F-15K≫강매와 군사력증강에 담겨진 미국의 검은 속셈을 낱낱이 발가놓아야합니다. 그래서 더많은 사람들이 대오각성하여 미국의 무기강매압력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나서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청년학생들은 대미군사적 종속관계를 분쇄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F-15K≫전투기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이남 무기체계의 대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미국 무기수입의 종속관계를 영구화하려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미군사적 종속관계가 지속되는 한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 민중은 미국 군수업체들의 치부의 대상으로, 전쟁희생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자 : 그러한 투쟁들과 함께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를 비호해 나선 민족반역세력을 반대하는 투쟁도 계속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줄 아는데요.
김현규 :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종한 이 땅의 호전세력은 ≪F-15K≫기 선정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느니 뭐니하며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를 비호두둔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부시행정부의 대변지들은 광고란까지 설정하고 ≪F-15K≫전투기를 가장 검증된,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발전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F-15K≫도입문제를 단순히 차세대전투기선정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로만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고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F-15K≫도입책동을 반대해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F-15K≫도입문제를 두고 의미 깊은 얘기들 많이 나눴다고 봅니다. 무기구매를 강요하는 미국의 추악한 행위에 대한 분노를 모아 우리 청년학생들이 벌이는 반미반전투쟁에서 더 훌륭한 성과를 기대하며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9일~30일

112주년 메이데이 전야 연대 한마당

30일 화요일 늦은 9시경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민주노동당의 주최하고, 메이데이 전야 연대 한마당 기획단이 주관하는 112주년 메이데이 전야 연대 한마당이 열렸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로써 112주년이 되는 메이데이 행사가 노동자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자들은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철회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반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대회는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6월 지방자치 선거의 승리를 결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젠≫의 공연으로 막이 올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천명했고, 홍근수 목사는 연대사에서 ≪반미≫를 외치지 않는 정당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문옥(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씨와 김준기(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후보)씨가 연단에 올라서자 참가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으며, 유정고 밴드, 꽃다지 등이 출연해 행사장 분위기를 북돋아 주었다.

노동절은 1886년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투쟁한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고, 올해로 112주년을 맞게 되었다. 노동절은 비단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사안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전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과시하는 날이자 축제의 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 들어 구속된 노동자만 750여명에 이르며 이중 50여명은 차가운 감옥에서 노동절을 맞게 된다고 하니, 노동절이 축제의 장으로 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날 행사는 향후 투쟁을 결의하면서 마무리 되었고, 내일 노동절 행사를 힘있게 결의하며 6시간에 걸친 행사를 마무리했다.

현석훈기자
민중의 소리 2002/05/01

패배의 쓰라림을 딛고 ≪가자!! 5월 총력투쟁으로≫

노동절인 5월 1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는 ≪세계노동절 112주년 기념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민주노총의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 각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한총련, 전학협 등 학생들 약 2만여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4월 2일 발전노조의 38일째 파업과 전국 단위의 총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노정간 협상에 지도부가 합의한 이후 패배감과 침체에 빠져 있던 민주노총이 5월 총력투쟁을 힘있게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이날 대회는 시종 무거운 듯한 분위기 속에서도 활로를 열어보려는 노동자들의 진지함이 가득했다.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노동운동탄압 분쇄?구속노동자 석방≫,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공무원?교수 노동3권 보장≫, ≪김대중 부패정권 규탄! 무기강매 미국반대!≫ 등의 요구를 내건 노동절 대회는 수도권 집중의 서울대회와 함께,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5만여 노동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식전행사를 마치고 노동자 단결의 상징 ≪인터내셔널가≫를 다 함께 부르며 본대회가 시작되었다. 본대회에서는 연설에 나선 지도부들이 저마다 한결같이 4월 2일 이후 패배감에 빠져있는 현실을 타파하고 5월 총력투쟁에 힘있게 나설 것을 힘모아 외쳤다. 대회사에 나선 이수호 민주노총 임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도 노동절을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면서 ≪민주노총에 가해지고 있는 탄압을 이겨내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들을 투쟁으로 구출해내자≫고 말했다. 특히 4월 2일 합의 이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주노총을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제정파가 다 힘을 모아서 모든 과제들을 풀어 나가, 마침내 5월 총력투쟁을 승리하자≫며 간절히 호소했다.

연대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역시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오늘 여기서부터 새로운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격려했으며, 한편으로는 지금의 정치권을 빗대어 ≪지금 김대중 대통련의 처지가 5년 전 정권과 똑 같다≫면서 ≪김대통령의 아들 3명 다 감옥에 가야한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이 김대통령 아들들의 구속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학생 등 대회 참가자들은 여의도에서 영등포역까지의 거리행진에 나섰다. 대오는 거리행진을 하는 도중 영등포의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에서 중간 집회를 가지고 영등포 분수대로터리에서 마지막 정리집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시종일관 5월 총력투쟁을 강조하며 결의하는 장이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5월 동안 3단계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 저지, 발전소 등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그리고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과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3단계 총력투쟁을 위해 민주노총은 사활을 걸고 말 그대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112주년을 맞은 노동절은 투쟁에서 패배한 노동자들에 대한 염려와 5월 총력투쟁으로 달려 나갈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연대를 결의하는 자리였다.

민중의 소리 2002/05/02

노무현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가?

메이데이 전야제에 열린 민주노동당 토론회

≪권영길 지지표는 사표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 최악인 이회창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진보진영이 대통령선거에 나오면 항상 제기되는 질문들, 이런 세간의 정서를 뒤집는 토론회가 열렸다.

112주년 메이데이 기념 전야제의 일환으로 열린 ≪노무현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가 민주노동당 주최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대에서 약 2시간 넘게 진행됐다.

≪노동자들이 노무현에게 희망을 걸고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철없다고 꾸짖을 건가요? 우리가 노풍을 대하면서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는 반노동자적인 정치인이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희망을 가져다 줄것인가를 겸허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토론회 강사로 나온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국장은 3김으로 대변되는 한국 보수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있는 노풍을 인정하면서도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노무현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지적을 했다.

노사무국장의 문제인식은 최근 시사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노총 소속회원이 비교적 적은 부산지역에 노무현후보의 지지도가 40%이하로 떨어진 반면, 소속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울산에서는 여전히 50%을 웃도는 지지율이 나타난다는 것,

하지만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 것과 최근 김영삼씨를 대담하는 등 구정치인과 만나는 일을 들먹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노무현은 반노동자적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으로 노동자세상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이 다수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대안마련만이 노동계의 ≪노풍≫을 억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진 토론시간, 참여한 학생들은 노무현이 대안일 수 없는 이유를 제기하며 열띤 주장을 이어갔다.

고려대문과대 새내기의 ≪민주노동당을 찍으면 이회창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들 한다≫는 문제성(?) 질문에서부터 경희대 새내기의 ≪서민을 위한 정치와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노무현밖에 없다≫는 노풍지지발언까지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97년대선 때 김대중을 지지했다. 하지만 4년동안 현 정권이 보여준 노동자탄압과 국가보안법수배자는 그 이전 정권보다 훨씬 웃돌았다.

친 노동자적이던 김대중대통령이 이러한데 신자유주의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노무현에게 한번 더 속을 것인가? 아니면 당선은 되지 않을 지라도 100만 표 목표로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란 물음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백영순기자
유뉴스 2002/05/01

4·30 노무현-YS 회동에 대해 비난과 비판 쏟아져

민노당 ≪3당합당은 야합이라더니…≫, 한나라 ≪거짓말 잘하는 양치기소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어제(30일) 상도동에서 있었던 노무현-YS의 만남에 대해 각각 ≪거듭되는 말 바꾸기 행태≫와 ≪3김 부활의 주역 노무현≫이라는 논평을 통해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남경필 대변인은 먼저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노무현 후보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라고 꼬집었다. 남대변인은 ≪노 후보는 90년 3당 합당 이후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며 ≪그런데 순식간에 얼굴빛을 바꾸고 말을 바꾸다니 노 후보의 천변만화 같은 표변능력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아예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YS 비난 발언록≫이라는 자료를 내고 노 후보를 향해 ≪DJ정권 · 호남정권 · 부패정권의 계승자라는 자신의 3대 본색을 감추고 눈속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과 술수도 마다하지 않을 태도≫라고 성토했다.

남 대변인은 ≪노 후보는 자신의 말바꾸기에 대해 진지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노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거짓말 잘하는 ≪양치기 소년≫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시간문제일 듯 싶다≫고 비꼬았다.

한나라당이 지적한 노 후보의 ≪YS 비난≫ 발언록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김영삼은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팔았다. 정계은퇴하고 용서를 빌어라.≫(90년 3월 26일, 부산민주시민 시국회의)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다더니 정작 굴에 들어가서는 호랑이 젖이나 빨고 있는 사람이 있다. 김영삼 씨는 그것도 모자라 호랑이 새끼들과 젖꼭지 다툼이나 하고 있다.≫(91년 5월 19일, 민생파탄 폭력살인 규탄 및 노정권 퇴진 촉구 시민대회)

≪김영삼 후보는 ≪머리는 빌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스스로 식견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식견이 모자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난다고 여러분들게 간곡히 호소했다. 그러나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97년 12월 3일,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TV 찬조연설)

민주노동당도 ≪노무현 비판≫에 나서고 있다. 이상현 대변인은 노무현-YS의 만남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화해를 통해 반독재투쟁에 앞장섰던 민주세력을 역사적으로 복원해서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구상인데 한마디로 가당찮은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물론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 선배인 양 김씨를 찾아가는 것은 있는 일이고 또 아무런 의심을 살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지역주의에 찌들대로 찌든 양 김씨를 찾아가는 모습은 노 후보 스스로 또다시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우를 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 이어 ≪양 김씨를 앞장세워 소위 ≪민주대연합≫을 통해 정계개편을 하고 이를 통해 재집권하겠다는 발상은 3김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영남지역주의와 호남지역주의를 함께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90년에 3당 합당을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그동안 3김 청산을 소리높이 외쳐왔던 노 후보가 이제 와서 3당 합당의 주역인 김영삼 씨를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결국 영남표를 얻기 위한 구애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양김의 복원은 양김의 부활이고 구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시대착오이다. 양김의 복원은 민주연합이 아니라 수구연합이고 개혁연합이 아니라 부패연합이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노무현 후보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노 후보의 정체성이 ≪이념≫과 ≪노선≫인지 아니면 ≪3김≫과 ≪지역≫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때≫라며 뼈있는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구영식기자
오마이뉴스 2002/05/01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2)

차 례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오늘날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권과 횡포를 휘두르고 있으면서도 유독 곤경에 빠지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 그곳은 한(조선)반도다. 미국의 정반대 쪽에 있는 동방의 작은 땅 한(조선)반도는 지금 미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주의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무한정한 전쟁책동과 약탈야욕을 최전선에서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하여 반제투쟁의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진보적 인류에게 승리의 여명을 비쳐주는 희망의 땅으로 거연히 솟아오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어째서 한(조선)반도에서 곤경에 빠져들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 그 까닭은 포악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과 약탈야욕을 억제하는 힘이 한(조선)반도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조선)반도에서는 제국주의의 준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억제력의 집중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 억제력은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다. 만일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미약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과 약탈야욕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진보적 인류의 반제자주화운동은 그 최전선이 붕괴되고 자주위업을 향한 인류사의 전진궤도에는 심각한 장애가 조성될 것이다.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화운동은 이 민족을 불행과 고통에 몰아넣었던 제국주의세력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조선)민족의 범위를 넘어 인류역사의 앞길을 선도하는 거창한 세계자주화운동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백년동안 제국주의자들이 지구 곳곳에서 저지른 침략과 파괴의 불길 속에서, 지배와 약탈의 고난속에서 전세계 피압박민족이 한없이 흘렸던 눈물과 피땀의 값을 한꺼번에 되찾고 자주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놓는 21세기의 세계사적 임무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가장 많이 희생당하고 가장 심한 고통을 강요당한 한(조선)민족의 자주력에 의하여 반제자주화운동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화운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 위대한 운동은 본시 하나의 뿌리인 민족주체역량에서 발생되고 전개되는 것이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두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갈래의 운동은 북(조선)의 반제혁명전략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혁명투쟁이다. 북(조선)의 반제혁명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던 **김일성**주석의 항일혁명에 그 역사적 근원을 두고 있다. 일제 식민지시기에 **김일성**주석이 영도했던 항일혁명은 일제 관동군의 침략무력에 맞서 싸우는 간고한 혈전을 벌였고,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도하고 있는 당대의 반제혁명은 미 태평양사령부 휘하의 방대한 무력과 대치하면서 첨예한 반제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1930년대이후 지난 70년동안 한(조선)민족이 전개해오고 있는 반제혁명은 자주의 기치를 따라 전진하였다.

항일혁명전선에서 반제자주의 총성이 울렸던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 한(조선)반도의 정세가 몰라보게 바뀐 지금, 북(조선)의 반제혁명은 새로운 정세에 조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새로운 반제혁명전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이다. 선군혁명전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군대를 혁명과 건설의 최전선에 앞세우고, 온 나라가 군사를 중시하며, 반제혁명무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부시는 북(조선)이 인민을 굶기면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북(조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군혁명의 간고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물음은 북(조선)은 왜 잘 먹지도 잘 입지도 못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은 주한미군사령관 토머스 슈워츠(Thomas Schwartz)의 발언에서 얻을 수 있다.

최근에 토머스 슈워츠가 발표했듯이,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 병력 80만명을 지휘하고 있으며 4백50만명 이상의 병력을 무장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군 태평양사령부 휘하의 전함 2백50척, 항공모함 4척, 헬기 1천대, 공군기 1천5백대, 전차 3천대, 장갑차 5천대, 포 6천문이 동원될 수 있으며, 거기에 일본 ≪자위대≫ 무력이 가세할 수 있다. 북(조선)이 이처럼 세계 최대 규모의 제국주의 군사력에 단독으로 맞서는 조건에서 반제자주위업을 수행해야하므로 자체의 군사력을 중시하고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자명한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에게 짓밟혔던 프랑스가 종전 후 국력을 집중하여 군사력을 키워야 했던 것처럼, 일제 식민지 36년동안 일본군에게 짓밟혔으며 3년동안의 한국(조선)전쟁을 거쳤던 북(조선)도 국력을 집중하여 군사력을 키워야 했다. 1963년에 다쏘항공사가 미라주 전투기 독자생산에 성공하였을 때, 프랑스제 핵폭탄을 실은 프랑스제 전폭기를 보유하려던 제국주의진영의 군사전략가 드골(Charles de Gaulle)이 추구했던 군사강국의 꿈이 실현되었다면, 1998년 8월에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의 발사가 성공하였을 때, 반제자주진영의 군사전략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국산 핵탄두를 탑재한 자국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반제군사강국의 꿈을 마침내 실현하였던 것이다.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북(조선)도 군사력의 독자화, 자위화를 실현함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군사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물론 북(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놓여있는 근본적인 차이는, 전자는 반제자주진영의 선봉에 서있는 영도국인 반면 후자는 제국주의진영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 시기 사회역사의 진보를 추동하였던 모든 사회변혁운동의 전략들이 당대에 제기되었던 가장 절실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처럼,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도 단순한 강병책(强兵策)이 아니라 현 시대가 제기하고 있는 가장 절실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다면 현 시대가 제기하고 있는 가장 절실하고 근원적인 문제란 무엇일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은 그 문제를 자주위업, 다시 말해서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억압과 속박, 착취와 약탈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그 전략에 의하면 인류진보의 역사는 인류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된다.

세계사를 돌이켜보면, 나침반과 화약을 사용했던 발생기의 제국주의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이 ≪중상주의 정책≫과 ≪새로운 대륙의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파괴한 역사, 곧 16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상업자본이 축적된 역사로부터 출발하였다. 서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이후 전함과 대포로 무장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의 제국주의세력은 ≪문명화(civilization)≫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세 대륙에서 침략과 약탈의 만행을 확대하면서 세 대륙 인민들에게 식민지의 재앙과 고통을 끊임없이 강요하였다.

그리고 20세기에 출현한 현대 제국주의진영은 핵무기와 전략미사일로 무장하고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정복과 예속의 공간으로 삼고, 전 인류를 지배와 약탈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날뛰고 있는 중이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가 범선 세 척을 이끌고 아메리카행 뱃길에 올랐던 때로부터, 그리고 1497년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범선 네 척을 이끌고 인도행 뱃길에 올랐을 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W. Bush)는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이끌고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고 있다.

지난 500년 인류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진보적 인류가 자기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실현의 길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적대세력인 제국주의자들과 투쟁하는 반제자주화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콜럼버스와 바스코 다 가마 이후 지난 500년동안의 역사적 경험에서 진보적 인류가 깨달은 진리다. 이 깨달음은 천년기를 마감하는 20세기에 이르러 한(조선)민족의 피어린 반제자주화운동을 통하여 마침내 세계관의 기초를 가진 과학적인 혁명사상으로 완성・확립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은 그 혁명사상을 구현하는 반제혁명전략이다.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위업을 수행하는 모든 민족성원들, 그리고 인류의 반제자주위업을 추구하는 진보

→

적 인류성원들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전략이 어떠한 실천적 경험에 의해서 창제되었으며, 지금 어떠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가장 격심한 고난을 겪었다는 20세기 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이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도발직전까지 몰아갔던 숨막히는 고비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언제나 혁명군대의 병사들 속에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들 속에서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포악한 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할 반제자주역량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북(조선)의 해설에 따르면, 1995년 1월 1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이 창제된 날이라고 한다. 2001년 11월 18일자 ≪로동신문≫은 그 날을 가리켜 ≪이 땅우에 선군정치의 첫 포성이 울린 력사의 날≫이며 ≪우리 건군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칭송하였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그 해 설날 아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푸르싱싱한 다박솔로 뒤덮여 있는 포진지≫를 찾아갔다. 그는 다박솔로 뒤덮여 있는 중대 주변을 둘러보면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다박솔 중대요, 이런 곳을 다박솔 중대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중대병사들에게 ≪동무들, 설명절을 잘 쇠고 있습니까?≫하고 인사를 하였다. 병사들은 ≪명절을 잘 쇠고 있습니다!≫라고 화답하였다. ≪다박솔 중대≫의 대공포 진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병사들의 화력복무훈련을 지켜보았고, 중대의 교양실과 병실도 세심히 둘러보았으며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박솔 중대≫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었다고 한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강대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확정적입니다.≫(로동신문 20001년 11월 2일자) ≪나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도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최고사령관이 될 것입니다.≫(로동신문 2001년 11월 18일자)

≪평양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 7월부터 2000년말까지 6년 6개월동안 인민군대에 대한 현지지도를 무려 2백75회나 하였으며 찾아간 부대는 5백60여개나 된다고 한다.(연합뉴스 2001년 10월 15일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때로 강냉이가루빵과 토장국으로 끼니를 때우며 진행하였던 현지지도의 기나긴 행정은, 반제자주화운동의 최고 단계인 반제혁명투쟁이 왜 자기의 전선에 노동계급보다 혁명군대를 앞세워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현대 제국주의진영에 맞서 투쟁하는 자주시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에 의해서 선군시대라는 또 하나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 선군혁명전략은 마침내 2000년 10월에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위업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무한정한 전쟁책동과 약탈야욕에 억제의 쐐기를 박은 역사적인 사변을 일으켰다.

둘째 갈래의 운동은 남(한국) 민족민주운동권의 반미투쟁이다.

남(한국)은 지난 시기 반미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불모의 땅≫으로 생각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반미자주화운동의 열풍이 부는 중심지로 바뀌고 있다. 남(한국) 일반대중속에서 반미자주의식은 고양되고 있으며, 그 기반위에서 민족민주운동의 반미투쟁은 더 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번에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반미투쟁이 전례없이 고조되었던 것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1993년 7월 10일 클린턴이 방한하였을 때는 미국이 북(조선)을 겨냥하여 전쟁도발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었던 시기였는데도 남(한국) 민족민주운동권의 반미투쟁은 그리 위력적이지 못했으며, 남(한국) 일반대중에게서 반미자주의식의 열기는 느끼기 힘들었다. 당시 남총련 학생들 5백여명이 광주의 아메리칸 센터앞에서 시위투쟁을 벌였고, 서울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합회 성원 1천여명이 시위투쟁을 벌인 것이 전부였으며, 당시에 내걸었던 투쟁구호도 ≪쌀수입 강요하는 클린턴 방한 결사반대≫라는 생존권 투쟁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남(한국)의 반미자주화운동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미자주화운동에 참가하는 범위도 매우 폭넓게 대중화되었고, 반미자주화의 구호를 정확하게 내걸었으며, 시위투쟁의 양상도 더욱 치열하게 변하고 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일어났던 반미투쟁은 부시 행정부에게 실로 위협적인 것이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2002년 2월 21일자는 부시 방한 반대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서울 현장에서 장문의 보도기사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적었다. ≪지난 군부통치시기에 일어났던 반미시위들은 이번에 부시의 방한에 즈음하여 일어난 비난공세처럼 격렬하지 않았다. 오늘의 시위는 최대의 반미시위였으며, 부시의 방일을 환영했던 도쿄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다.≫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과 남(한국) 민족민주운동권의 반미자주화운동이다. 이 힘의 주체는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중심축인 미국을 겨냥하여 각기 다른 방향에서 위협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한(조선)반도에서 전개되는 반제자주역량의 공세에 떠밀리며 차츰 곤경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내일 계속)

한호석(통일학연구소장)
민 2002년 4월호

광 고

대학신입생에게 추천하는 영화10선